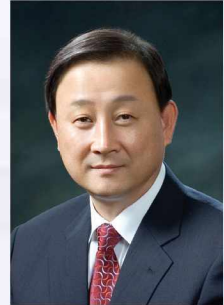


명사칼럼

석면문제, 기술표준화로 해결하자



이명규
국회의원
(지식경제위)
02-788-2177

조용할 만하면 터지는 석면 문제

지난 4월,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한 '석면 베이비 파우더'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석면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슬레이트 지붕이나 건설자재, 폐기물과 매장고, 세탁기 등 전기 전자제품 등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석면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화장품의 탭크 성분까지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석면의 피해가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비단 유아용 베이비 파우더뿐만 아니라 일반 화장품, 의약품, 김, 풍선, 고무장갑 등에서 줄줄이 석면이 검출되는 작금의 사태에서 과거 중국산 생선, 불량반두, 빨라민 파동 등과 같이 생활필수품 중에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수년 동안 해당 제품들은 시중에 부분번하게 유통되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치명상을 입혔다. 석면광산, 석면제품 제조공장, 지하철, 학교 등의 건설 공사 현장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의 경우, 향후 흡연시에 폐암에 걸릴 확률

이 무려 5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들도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심각한 신체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 가운데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로 분류된 물질로서, 베이비파우더의 경우 70-90%가 탭크로 이루어져 탭크에 함유된 석면 성분이 피부에 바르는 과정에서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술한 석면관리체계가 큰 허점

그러나 석면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서처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문제의 제품들을 회수,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이는 사후조치에 그치는 한계점과 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여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명 화장품 업체 두 곳에 공급된 탭크 원료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공개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사후조치에 비효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석면의 안전성 건사가 환경부, 노동부, 식약청, 기표원 등에 분산된 것도 아쉬운 점이다. 각 부처마다 석면의 시험분석방법이 각기 달라 적용되는 기준이나 분석도구에 따라 혼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석면과 관련한 성분분석이나 안전기준치 등에 대해 하루빨리 표준화된 규격을 제시하여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에 석면이 원료로 첨가되었던 석면페인트, 석면방직, 석면전기, 석면단열, 석면조인트시트 등의 제품들부터 석면에 오염된 벨크 함유의 화장품, 의약품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석면함유의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KS 규격화 추진으로 석면함유제품 관리감독 강화

그러나 현재까지 기표원에서 석면 안전과 관련한 표준화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베이비 파우더 사태로 화장품, 의약품 등 생필품의 석면함유와 이로 인한 인체노출 위험이 불거지자 뒤늦게 관련 부처와 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고루 활용할 수 있는 공공가치인 '석면 시험분석방법 KS표준 제정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 KS 제정계획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술 및 제도 등의 조사·분석을 위해 '석면 시험분석 KS표준 기술연구회'를 운영하여 '국내·외 석면 시험분석방법의 표준 및 전문지표를 수집하고, 석면 계통 분석과 최적의 시험방법을 도출함으로써 통합적인 KS표준 제정(안)을 작성할 계획과 둘째, KS표준 제정(안)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화학시험연구원 등 전문분석기관의 협조 아래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업체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기표원은 망설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와 더불어 석면관련 제품 등을 안전검사 대상제품으로 설정하거나 이들 제품의 석면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급변 KS 제정이 향후 석면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례로 남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침으로써 단순한 행정적 지방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게으른 정부 때문에 희생자가 나오는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석면제품 통합·관리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입법추진

한편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1일부로 석면원재료의 수입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석면함유 제품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문제는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가 미흡한데다가 법제도적인 관리가 허술한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내 석면 함유량의 제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다가 국내 수입품 중 석면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 부재와 수입절차상의 정확한 분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국회와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입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 등의 대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당 상인위에 계류 중인 석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보완하여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술표준 2009. 6

